

**금주 법구**  
 산에 들어와서 겨우 머리식음을 배우니  
 입이 있어도 쉽게 여는 것을 꺼린다네.  
 남의 잘못된 말을 따지지 말고  
 자기의 허물을 스스로 고치게나.  
 -석옥 청공선사-

# 현대불교

불교하는 불교 시사선원 02-745-8503  
 011-286-2680  
 서울 성북구 성북동  
 시사선원 041-734-2680  
 대전 본산시 연안면 송림리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THE HYUNDAE BULKYO 불기 2545년(서기 2001년) 11월 28일 수요일(주간) 제 345호

## 뉴스속뉴스 news in news

### 송광사의 '대중공의 운영'

총림의 인사, 불사추진 등 일체 사중일이 대중공의에 의해 운영되는 순천 송광사(주지 현봉)가 사찰운영의 귀감이 되고 있다.

송광사가 올해들어 적극적인 문화 학술활동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소수의 의견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뜻을 모아 사업으로 구체화 할 수 있었던 민주적 협의체인 조계종림운영위원회가 구성돼 있었기 때문



전 대중이 조석으로 대중공사에 참여하는 송풍전직과 일부스님 제자 위주의 본 말사 주지 임명 등의 폐해가 사라진 것은 물론, 대중들이 마음을 합하여 총림운영에 참여하면서 문화화합이 이뤄진 것이 우선적으로 돋보이는 성과다.

송광사의 요즘 화두는 '불교 문화'라는 말처럼, 크게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재정이 많이 들어가는 문화 학술분야에 집중했던 것도 운영위 스님들의 정제사용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이 모인 데 따른 것이다.

운영위의 결정에 따라 문화재 보존수리 기술을 가르치는 '불교 상보 보수 교습원'이 설립됐는가 하면, 종무행정 전산화 교육, 국제학술대회도 개최했다. 또 지역불교 활성화를 위한 지역 포교에도 주력키로 결의하여 마을법회를 병행하고, 경로잔치 운동회 등의 지역행사도 후원을 아끼지 않은 것도 총림운영위 회의에 따른 성과다.

송광사 총무국장 보리스님은 "운영위원회는 합리적인 결정을 도출할 수 있게 사찰 소임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며 "큰 일, 작은 일 할 것 없이 함께 논의하기 때문에 개방적인 종무행정이 이뤄지고 대중의 힘이 결집된다"고 밝혔다.

김원우(취재 1부 차장)

# '재가자 동안거' 늘고 있다

## 20여 사찰·재가선원서 3400여명 결제

29일(음) 10월 15일부터 내년 2월 26일(음) 1월 15일까지는 동안거 결제기간. 3개월 동안 스님들이 한 곳에 모여 참선정진하는 이 기간에 스님 못지않은 용맹정진에 나서는 재가불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재가자 동안거가 실시되는 사찰은 20여 곳. 해인사 원당암이 150여명, 용화사 보살선원이 130여명, 서울 한국선원이 500여 재가자들의 방부를 받는 등 모두 3천400여 재가자들이 결제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 가운데 한태종 총본산 구인사는 41년간 끊임없이 계속돼 온 1개월 안거 원칙에 따라 12월 18일부터 내년 1월17일까지 동안거를 실시, 1천500여명이 동참하는 결제에 들어간다.

재가자 안거의 호시는 해방후 전 강스님이 개설한 인천 용화사 보살선원, 송담스님이 그 뒤를 이어 매년 1백여 보살들이 결제 안거에 동참하고 있다. 72년부터 월마다 70여명의 재가자가 안거를 나는 부산 해운정사는 재가자와 스님을 같은 선원에 서 정진시킨 황곡스님의 가풍을 이어받아 전법제자인 진제스님이 직접 선수행을 지도하고 있다. 78년 해암스님(조계종 총정)이 해인사에 주석한 뒤 개설한 원당암 재가선원에도

### 종단협 대표 12월 11일 방북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정대)는 23일 인사사회를 열고, 조선불교도연맹과 실무회담을 위해 12월 11일부터 15일까지 북한을 방문키로 했다.

이번 방북은 조선불교도연맹이 23일 종단협에 공식 초청장을 보내 온 데 따른 것이다. 실무회담에서는 대북지원물자 공정부담, 내년 서울한중일대회 북한 참가, 단정재로 지원 등의 현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종단협은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 2차례에 걸쳐 8억6백만원 상당의 대북지원금을 결의하고, 종단별 지원분담 방안을 확정하여 추진키로 결의했다. **관련기 사 9면 김원우 기자**

## 인도불교 지원 '손길'

### 우리는 선우·달라이 방준위 등 앞장

지난 4월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디게종식 관련 기사가 본지에 연이어 상세히 보도되자, 인도불교를 돕자는 국내 불자들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우리는선우와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원회 등 불교단체에는 본지 보도가 나간 후 인도불교를 돕는 불사를 하지 않느냐는 불자들의 문의전화가 잇따랐다는 후문이다. 이에 따라 캄보디아, 몽고, 티베트 불자들을 후원해 온 우리는선우와 티베트명왕정부를 지원해 온 달라이라마방한준비위를 주축으로 한 인도불교 돕기 불사가 조만간 가시화 될 전망이다.

특히 지난해 티베트불교 돕기에 적극 나선 우리는선우는 이번 대개종식을 개최한 '로드 붓다 클럽'에 축하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매년 1-2만 달러의 보시금을 인도불교단체에 보내는 등 지속적으로 인도불교 돕기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인도 주요 불교단체의 행사에 한국측 대표로 참석하는 등 한-인 불교교류도 추진할 방침이어서 양국 문화교류도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인도에는 '로드 붓다 클럽'과 델리 재가불자협회, 임베트르 기념위원회, 불교지원기금(BMSC) 등의 단체들이 사회개혁운동과 사회복지, 포교사업 등을 벌이고 있지만 한두교도들의 조직적인 탄압과 열악한 재정, 신도 조직 부실 등의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관련기 사 2면 김재경 기자 igkim@buddhapa.com**



"석굴암 전실 잘못 복원" 1909년 사진 발견  
 석굴암 전실의 마지막 끝부분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채로 남아 있었다. 사진은 1909년 촬영된 것으로 보인다. 1910년에 발견된 최초의 조선미술사 연구서인 <조선미술대관>에 실려 있다. **관련기 사 17면**

### 장군죽비

- ◇ '불교여성개발원' 기대에 못미치는 활동으로 1등 맞이, 홍보대중성·전문성 부족을 탓하기엔 외조도 부족. (9면)
- ◇ 인력사 문제, '행복한 죽음'과 '생명 존엄' 사이에서 우왕좌왕. 죽음도 삶의 일부라는 부처님 가르침에 귀 기울일 때. (8면)
- ◇ 석굴암 전실의 8부신중 배치 원형 보여주는 사진 자료 발견, 세월의 풍화도 최고 수준의 문화재 앞에서 허리를 숙인다. (17면)
- ◇ 불교환경연대 '어린이 환경수비대' 발족, 환경 문제의 본질은 사람 문제. '못난 어른' 되기 전에 기본 본분하. (23면)

## 여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상정

### 민주당-선의취득 배제, 한나라당-공소시효 정지

민주당 이미경의원과 한나라당 고인환의원이 의원발의형태로 국회에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민주당 이미경의원은 17일 의원 31명의 동의를 얻어 지정문화재에 한하여 선의취득제도를 배제하고, 동산문화재 점유에 관한 소유권 취득을 지정문화재에 한하여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한나라당 고인환의원도 의원 41명의 발의를 얻어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고의행위가 발의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비지정 문화재 수리보존을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와 문화재 은닉의 경우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하고 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제출된 문화재보호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및 결의를 거쳐 12월 본회의에 상정된다. 본회의 결의 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개정 공포된다. **관련기 사 17면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a.com**

## 조계종 군불교위원장에 성광 스님

### 30일 대전서 출범식

조계종 포교원(원장 도영)은 20일 군불교위원회 초대 위원장에 군순단장을 역임하고 현재 예비역군법사회 회장인 성광 스님(화계사 주지)을 임명했다. **관련기 사 3면**

또 부위원장에 공군 군순법사를 전역하고 교육원 교육부장을 역임한 계성 스님(강화 전동사 주지)을 임명했다.

군불교위원회 회장단을 확정하고 포

교원은 30일 오후 5시 30분 대전 계룡대 무궁화회관에서 '군불교위원회 출범식 및 33주년 군순의 날 기념법회'를 봉행키로 하고, 조직구성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군불교위원회는 월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가지며 정책을 의결하는 상임회의와 예산집행 계획을 수립하는 운영회의로 이루어진다. 운영회의장은 군순단장격인 최고참 선임법사가 맡으며, 운영위원들도 각 군의 선임법사들로 구성된다. 운영회의 산하에는 각종 군 포교 사업을 집행할 행정사무국이 국방부 종교센터 내에 설치된다.

현역 군순들로 구성된 군순총회도 1년에 두 번씩 열어 교육 수련회 개최와 군 포교 관련 사업에 관한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공식적인 창구로 활용할 계획이다.

내년 1억1천5백만원의 예산이 책정된 군불교위원회는 신도관리에 중점을 두고 국방부 원광사 등 원찰지정 신도등록과 신도증 발급을 비롯해 군 병당 지원을 위한 1부대 1사람 결연맞이 운동 등을 추진키로 했다. **김주일 기자 jim@buddhapa.com**

## 한글대장경이 불국토를 장엄합니다



현대불교 - 동국역경원 공동캠페인  
**대장경을 읽읍시다.**  
**대장경을 봉안합시다.**

동국역경원이 36년만에 320권으로 완성한 한글대장경은 우리를 깨달음의 길로 안내하는 부처님의 자상한 가르침, 법보(法寶)입니다.

지금, 바로 지금 사찰과 가정에 한글 대장경을 봉안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마음 밝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지극정성 귀의하면 누구나 환하게 열린 깨달음의 길 그 길에 우뚝선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한글대장경」 및 봉안 전용 장경각(주문 제작 보급)

종로구 경치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 02-737-8881, 02-722-4162 팩스 : 02-737-0697

사찰에 봉안하면 정보  
 가정에 봉안하면 가보  
 읽고 마음 밝히면 법보  
 한글 대장경은 불자의 귀의처입니다.

### 장경각의 특징

- **신앙성**: 한글대장경의 한 가운데 석가모니부처님 상과 탱화가 화려한 단장과 불단으로 장엄되어 있어 법신불에 귀의하는 신앙적 의미를 갖추었다. 신실 포교당의 경우 장경각으로 불단을 구성 할 수 있다.
- **장엄미**: 세밀한 부분까지 정교한 조각으로 장엄미를 극대화 했다. 연화문 당초문 사자상 쌍용상 등이 어우러져 법신불을 천양 호위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 **실용성**: 7개의 서랍과 이동식 공양물 받침대, 연화문 문문 귀면문의 손잡이등이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발휘한다.

※ 장경각은 사찰봉안용과 가정 소장용 두가지가 있습니다.